

“태어난 나라는 달라도 하느님의 나라는 하나”

박문옥 도의원, ‘발달장애 어머니’ 라이안 제라딘 수녀 면담
50년간 복지 헌신...70만원 급여 중 생활비 빼고 모두 기부

전남 목포에서 반세기 동안 발달장애인 복지를 위해 헌신해온 라이안 제라딘 수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3)은 지난 25일 목포 명도복지관을 방문해 라이안 수녀를 만나 위문품을 전달하고 환담했다. 명도복지관은 1992년 개관 당시 라이안 수녀가 관장을 맡아 사회복지에 열악하던 시절 발달장애인 복지의 초석을 놓은 곳이다.
1975년 처음 한국에 발을 디딘 라이안 수녀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지만 모르니까 오히려 재미있었다”며 웃음을 지었다. 그는 한국 입국 초기 한 시민이 팔을 잡고 “사람이 맞느냐”고 묻던 일화를 회상하며 주변에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나 현장의 현실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라이안 수녀는 “공무원들이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알지만, 서류에 치우쳐 정작 마음을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박 위원장은 “월 70만원 남짓한 급여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대부분을 기부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수녀님의 신념과 실천에서 존경과 배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가 공무원과 복지기관을 연결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라이안 수녀는 “태어난 나라는 달라도 하느님



박문옥 전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최근 목포 명도복지관을 방문하여 라이안 수녀를 만나 위문품을 전달하고 환담했다.

의 나라는 하나”라며 “대한민국에서 보낸 지난 50년이 너무 행복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라이안 수녀는 대통령표창과 대한적십자장인장 등을 수상하며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한국 입국 50년, 전남 봉사 40년을 맞은 올해는 관계 기관의 관심이 예전만 못해 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관광재단은 최근 무안군 남악 중앙공원 일대에서 열린 '제4회 무안마을 장애인 인권영화제'에 참여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와 기부로 지역사회와 따뜻한 연대 실천 전남관광재단, 무안마을 장애인 인권영화제서 물품 기부

전남관광재단은 최근 무안군 남악 중앙공원 일대에서 열린 '제4회 무안마을 장애인 인권영화제'에 참여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기부 물품을 전달하며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에는 관광재단 '나눔봉사단' 9명이 참여해 관람객 안내, 체험·홍보부스 운영 지원, 무대 진행 등 행사 운영 전반에 힘을 보탰다. 또 수건 100장을 기부해 현장에서 관람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해 영화제가 지난 나눔과 연대의 의미를 함께 확산시켰다.
전남관광재단 나눔봉사단은 올해 초 재단 직원 10여명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진 봉사동호회로,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기부와 봉사를 통

한 나눔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이번 참여도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장애인 인권 증진이라는 영화제의 취지를 함께 공감하고 지역사회와 연대하기 위한 마음에서 이뤄졌다.
안재성 무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이번에 전남관광재단이 물품을 기부하고 직원분들이 직접 나서서 도와주신 덕분에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김영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차별 없는 문화 향유를 위해 지역사회와 늘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전남관광재단은 봉사와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ESG 가치 실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동강대 호텔조리관광과는 지난 7월 (사)한국국제제소믈리에협회 주관으로 서울 경희대에서 열린 와인 소믈리에 시험 중 급과정 '인터미디어이트'와 초급과정 '영소믈리에' 부문에서 필기·실기를 통과했다.

동강대 호텔조리관광과 '와인 소믈리에' 배출 6연 연속...테스트 중급 '인터미디어이트'·초급 '영 소믈리에' 합격

동강대학교가 글로벌 시대 비즈니스 필수 에티켓인 '와인 소믈리에 교육' 명문학교로 명성을 높이고 있다.
동강대 호텔조리관광과는 지난 7월 (사)한국국제제소믈리에협회 주관으로 서울 경희대에서 열린 와인 소믈리에 시험에서 중급과정인 '인터미디어이트'와 초급과정인 '영소믈리에' 부문에서 필기·실기를 통과했다.
동강대는 지난 2019년부터 국내 최고 권위의 소믈리에 시험에서 6년 연속 합격생을 배출하며 JW 메리어트호텔, 하얏트호텔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소믈리에에 와인을 관리하고 고객의 기호와 취

향을 파악해 원하는 음식과 와인을 서비스 하는 전문가다.
유능한 소믈리에의 유무에 따라 레스토랑의 매출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격한 테스트가 요구된다.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와인의 성격 △블라인드 테스트 △와인과 요리의 조합을 살피는 마리아주 △고객서비스 응대까지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정호 지도교수는 “와인은 호텔외식 서비스 뿐 아니라 글로벌 시대 비즈니스 필수 아이템이 됐다”며 “와인 교육과 함께 글로벌 파트너로서 와인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PEOPLE

2025년 9월 30일 화요일



대한한돈협회 화순지부

화순에 800만원 상당 한돈 쾌척

대한한돈협회 화순지부는 최근 800만원 상당의 한돈(2kg) 348박스를 화순군에 기부했다.
대한한돈협회 화순지부는 매년 한돈과 후원금을 기부해 화순군 소외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명실상부 나눔을 선도하는 대표주자다. 특히 이번 기부는 13개 읍·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원들과 함께 행복동행 화순군을 만들기로 했다.
대한한돈협회 화순지부는 기부한 한돈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원들이 직접 전달하며 이웃의 어려움을 이웃이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 생활복지 안전망 구축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구복규 군수는 “쉽지 않은 나눔을 익숙하게 하고 계시는 대한한돈협회 화순지부 박용만 지부장과 협회 회원들께 감사하다”며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위해 노력하는 모두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원이고 든든한 화순군의 복지 지킴이다”고 밝혔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송형곤 전남도의원

추석 앞두고 고흥 복지시설 위문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최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흥군 소재 '고흥 영화의집'과 '고흥노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명절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환담하며 건강을 기원했고, 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종사자들에게는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시설 운영 상황과 생활 여건을 꼼꼼히 살피고, 안전관리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청취했다.
송형곤 의원은 “추석은 가족의 정을 나누는 소중한 명절이지만, 주변에는 여전히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계신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함께 나눌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 모든 분들이 넉넉하고 따뜻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송 의원은 “이웃과 함께하는 작은 나눔이 모여 사회의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HD현대삼호, 추석 맞아 지역 복지시설에 온정 영암 영애원 등 34개소에 쌀·생필품 2200만원 상당 지원

HD현대삼호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
29일 HD현대삼호에 따르면 김재을 사장이 최근 영암 영애원을 찾아 김성실 원장 등 시설 직원과 아동을 위로하고 쌀과 생필품, 은누리상품권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영암 영애원은 1956년 설립된 아동양육시설로 현재 종사자와 이용자 등 60여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HD현대삼호는 이번 추석을 맞아 영애원을 포함해 영암·목포·무안·신안·해남을 비롯한 인근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 등 34곳을 대상으로

22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지원했다.
회사 임원·부서장 후원회도 삼호읍 흙품 어르신 20세대에 5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하며 힘을 보탰다.
김재을 사장은 “HD현대삼호는 앞으로도 국가와 지역의 미래인 아이들이 어려움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HD현대삼호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지역 농촌과의 상생 및 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 기금 1억원을 출연하기도 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게시판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결같은센터. 문의 062-374-2818.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문의 061-320-7024.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

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여,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상보감 등 진행. 062-223-1357.
모집
▲신장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장동 대광로제비앙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 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문의 062-511-0030.
▲시니어플래너지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지매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운세 (음력 8월 9일)

48년생 대길한 운세로 새로운 것을 얻는다
60년생 여러 관점에서 정확함을 담보하라
72년생 예상치 못한 형태로 나타난다
84년생 힘드실 성공 시킬 것이다
96년생 다투어 생기겠지만 양보하라
51년생 은인을 은인으로 알 것이라
63년생 지인과 왕래 끊길 우려가 있다
75년생 그릇이 커 많이 담을 수 있다
87년생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99년생 사고우려가 있으니 외출 삼가하라
54년생 좋은 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66년생 군은 마음가짐이면 건디어 낸다
78년생 여행 할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
90년생 침지 않으면 관재로 확대된다
57년생 위태로운 상황을 자초할 필요 없다
69년생 기쁜 마음이면 성과가 높다
81년생 억울한 일로 오해를 받는 날
93년생 충고를 받아들이고 경계를 살려라
49년생 부동산 거래는 단념하라
61년생 말로 인해 후회하게 될 것이다
73년생 손해가 있으나 훗날 큰 이익으로 온다
85년생 부동산으로 인한 다툼을 조심하라
97년생 구설수를 조심하고 분수를 지켜라
52년생 문서·건강운 모두 길하다
64년생 흥겨운 풍악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76년생 과대평가 하지 말고 상황을 살피라
88년생 적당하지 않으면 미련없이 버려라
55년생 겁없이 이행하면 망신 수 있다
67년생 배우자와 이별의 암시가 있다
79년생 속임을 당할 수가 있다
91년생 동료나 이성과 좋은 만남이 있는 날
58년생 악순환의 고리 끊어야 한다
70년생 문제없으니 근심하지 말 것
82년생 남매에 주의해서 언행을 삼가하라
94년생 싸움이 있으니 항상 주의하라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직명

50년생 독불장군운 없는 것을 알라
62년생 길가에 도둑이 기다리고 있다
74년생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
86년생 귀하의 마음부터 우선 잡으라
98년생 옳든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 것
53년생 큰 일을 성공시킬 수 있는 운
65년생 귀인이 오거나 기쁜 소식이 온다
77년생 우선은 할 수 없으니 저 주라
89년생 연인과 함께하면 사고 조심
56년생 무슨 일이나 양보하라
68년생 가까운 사람에게 말 조심
80년생 어떤 상황에도 제치있게 행동하라
92년생 연인에 대해 세밀한 관찰하라
59년생 진면목을 보일때가 왔다
71년생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라
83년생 사고 예상되니 여행은 삼가하라
95년생 미련을 버리면 좋은 일이 따른다